

Digital & IT

'스마트 바람'

스마트폰 이어 스마트북·스마트HD까지

<자판 없는 노트북> <손안의 극장>

넷북 기능 겸비한 200달러 미만 제품 내달 출시

걸어다니면서도 고해상도 영상 볼 수 있는 시대

"당신은 '스마트'(SMART) 하시나요?"

2010년 경제계의 화두는 '스마트'다. '맵시 좋은, 깔끔한, 똑똑한'이라는 뜻의 단어이기도 한 '스마트'는 최신 IT기기 명칭에 사용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전세계를 강타한 스마트폰에 이어 노트북인 스마트북과 '손 안의 작은 극장' 스마트HD 등이 판매를 예고하고 있어 2010년엔 '스마트' 전광이 일어날 전망이다.

<작지만 착한 컴퓨터 '스마트북'> =스마트북은 노트북보다 훨씬 얇고 가벼우며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넓은 차세대 PC를 말한다. 우선 키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휴대성을 위해 키보드를 없애는 대신 화면을 눌러 작동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LCD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고 기능은 일반 노트북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3세대 이동통신(WCDMA), 무선 인터넷,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다양한 무선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이메일 송수신은 물론이고 인터넷전화(VoIP) 등을 활용해 음성통화도 가능하다. 또 동영상 재생과 문서작성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프리스케일은 200달러 미만의

스마트북을 다음달 내 놓을 예정이다. 3세대 이동통신과 와이파이를 지원하며 인터넷TV를 연동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북과 비슷한 성능의 태블릿 PC는 애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애플은 9~10인치 정도의 터치스크린에 무선랜, 블루투스 등을 내장한 태블릿 PC를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극장급 화질의 '스마트HD'> 3D TV도 공개 = 대형 디지털TV나 고성능 PC에서 지원되던 HD 고해상도 영상을 이제 휴대용기기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이리버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0'에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신제품 '스마트HD'를 선보였다.

스마트HD는 '손 안의 작은 극장'을 콘셉트로 해 HD급 고화질 영상을 별도의 파일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재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3.5인치 스크린을 통해 1천600만 컬러의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며, 동급 제품 중 최고 수준인 480x320 해상도를 구현했다.

3D 영화인 '아바타'가 전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면서 3차원 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리스케일의 스마트북



▲모토로이 스마트폰

▲아이리버의 스마트HD

데 3D TV도 조만간 선보일 전망이다. 'CES 2010'에서는 3D TV는 물론 TV와 인터넷 화상통화가 결합한 TV까지 공개됐다.

<구글(google)도 뛰어든 '스마트폰' 시장 = 휴대전화로 전화와 문자만 보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인터넷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검색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등을 고르며 휴대전화로 못하는 게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스마트폰의 선두 주자'는 애플의 아이폰. 세계적으로 3천500만대를 판매한 아이폰은 최상급의 터치감

과 10여만개의 프로그램, 질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수년째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검색사이트로 유명한 구글과 모토로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며 아이폰의 야성에 도전하고 있는 판국이다.

구글은 다양한 검색기능과 노트북 수준의 성능 등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폰 '넥스스원(Nexus One)'을 공개했으며 모토로라는 9.4cm(3.7인치) 대화면과 800만 화소 카메라, 지상파DMB 등을 갖춘 모토로이를 최근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돈 도는 속도 빨라졌다

작년 3분기 1년만에 최고

시중에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져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돈이 빨리 도는 것은 금융시장의 기능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그동안 돈줄이 막혀 있던 '돈맥경화' 현상이 점차 해소되면서 가게와 기업 등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장차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통화당국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통화유통속도는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화유통속도는 연간으로 환산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시중 통화량 지표인 광의통화(M2)로 나눈 계산한다.

통화유통속도는 그동안 계속 떨어져 왔다. 지난 2007년 4분기 0.808이던 통화유통속도는 2008년 1분기 0.779, 2분기 0.768, 3분기 0.747 등으로 줄곧 하락했다.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시장이 극도의 경색에 빠진 2008년 4분기와 지난해 1분기에는 0.704와 0.687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유동성은 대량 공급되면서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하지만 통화유통속도는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2분기 통화유통속도는 0.702로 다시 0.7을 넘겼고, 3분기에는 0.710으로 올라 2008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통화유통속도와 더불어 자금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통화승수 역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통화승수는 한은이 공급한 분원통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대출 등을 통해 시중에 공급한 통화량의 규모를 가늠한다. 보통 M2를 분원통화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위기 이후 대출창구가 막히면서 통화승수는 2008년 11월 26.3배에서 12월 24.2배, 지난해 1월 22.5배, 3월 22.4배 등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4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11월 25.6배까지 상승했다. /연합뉴스

작년 화폐 발행 2조3,318억

광주·전남 전년보다 10.4% 증가... 환수액은 2조2,881억

2009년 광주·전남 지역에 공급된 화폐 총발행액이 전년도에 비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09년 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표분부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공급된 화폐 총 발행액은 2조3천318억원, 총 환수액은 2조2천881억원으로 437억원이 발행 초과했다.

2009년 6월 5만원권 신규 발행과 하반기 경기회복세 전환 등에 따른 현금수요 증가로 화폐 총 발행액은 2008년에 비해 10.4%(2천191억원) 늘어난 반면 총 환수액은 2.4%(54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도 큰 폭의 환수초과(1천207억원)에서 발행

초과로 전환됐다. 총 발행액 가운데 은행권 발행액은 2조3천2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172억원(10.3%) 증가했고 환수액은 2조2천876억원으로 549억원(2.5%) 증가했다.

지폐 종류별로는 새로 발행된 5만원권이 24.7%를 차지하면서 모든 권종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1만원권 비중이 95.7%에서 71.8%로 감소해 가장 많이 축소됐다.

2009년 광주·전남 지역 주화 발행액은 105억1천6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억7천400만원(21.7%) 증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달 안에 해지해도

정기예금 이자지급

은행들은 고객이 정기예금에 가입해 한 달 안에 해지하더라도 이자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 현황과 이자율 적용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 은행이 1개월 안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으면서 고객이 정기예금을 단기에 해지한다고 해서 이자를 주는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마일... 스마일... 신세계"

신세계백화점 행복이미지 구축

'웃음 과정' 신설 고객 맞이 교육

"표정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으면 인사는 말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박건현 대표가 최근 웃음으로 고객을 맞자는 내용의 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인 '스마일 신세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스마일 신세계는 백화점 내에서 고객과 협력

사, 매장 직원 모두가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행복을 주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신세계백화점은 그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웃는 요령을 훈련받고 분위기를 즐겁게 해 주는 방법 등을 배우는 과정인 '스마일 아카데미'를 개설해 매장 관리자 및 교육 담당자 589명이 이수

를 하도록 했다.

또 협력사 사원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필수 서비스 교육 과정에 '웃음 과정'을 신설해 즐겁게 고객을 대하는 자세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매장 근무자 뿐 아니라 분사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미래지향적 유머 리더십', '스마일 교육강좌' 등이 별도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코스피 1720선 돌파

해외악재 불구 이틀째 상승

코스피지수가 해외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 전 고점을 넘어섰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7.63포인트(0.45%) 오른 1,722.01를 기록, 이를 연속 상승했다. 지수는 이로써 장중 전고점뿐 아니라 종가 기준 지난해 최고치인 1,718.88(9월22일)도 경신했다.

이날 지수는 중국 건축 우려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으로 13.85포인트(0.81%) 내린 1,700.53으로 출발해

장중 1,700선 밑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가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반등하고 최근 부진했던 자동차주 역시 강세를 보이며,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인 5거래일 매수 우위를 보이며 시장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featuring a family and various hearing aid models. The ad includes the sloga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and lists three benefits: 1. 매우길 수명입니다, 2. 안전보장입니다, 3. 가격이 마음에 듭니다. It also provides a website URL www.kitnet.com.